'한 잔으로 채우는 일상의 기쁨, 데일리 와인'

베린저 메인&바인 메를로

Beringer Main & Vine Merlot

지역	미국 〉 캘리포니아		
포도품종	메를로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6-18℃		
테이스팅 노트	잘 익은 자두, 커런트의 맛이 즉각적으로 잘 표현된다. 달콤하고 감칠맛 있는 오크 뉘앙스가 포도와 잘 어우러져 부드럽고 라운드한 텍스처를 구성하며 입안에서 좋은 느낌을 선사한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치즈/ 훈제,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당도 (DRY –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 FULL): **1** **2** **3** **4** 5

제품설명

메인&바인 시리즈는 오랜 세월 동안 세대에 걸친 와인 제조 기술과 가치가 쌓여온 베린저를 대표하는 제품이다. 친구와 가족이 모여 인생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이지-드링킹(Easy-Drinking)와인이다.

*빈티지에 따라 알코올 도수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와이너리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역사적인 와이너리 가운데 하나로 1876년,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의 정착한 독일인 형제 제이콥 베린저(Jacob Beringer)와 프레드릭 베린저(Fredrick Beringer)에 의해 역사가 시작되었다. 나파 밸리 와인의 개척자로 알려진 베린저는 139년의 역사동안 총 8명의 수석 와인메이커를 두고 최고의 와인에 대한 자신감과 나파 와인에 대한 책임감, 사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다. 캐주얼 와인부터 플래그십 명품 나파 부티고 와인까지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최고 와이너리답게 금주령 시기에도 시기에도 미사주 전담 양조를 허가받았으며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 모두 'Wine Spectator'가 선정한 '올해의 와인(Wine of the Year)로 선택된 유일한 와이너리다.

이 외에도 'Wine Enthusiast', 'Wine&Spirit'으로부터 '올해의 와이너리'에 총 11번 선정되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